

17_4_한국어_穴太廢寺跡

아노하이지 절터

나라 지정 사적

아노하이지 절터에는, 오쓰 수도 시대 무렵 (667~672 년)에 옛 지형에 따른 옛 가람과 오쓰궁 방위에 맞춘 가람의 2 개가 확인되었습니다. 후자는 오쓰궁 조영에 수반하여 급거 다시 세워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이 절은, 663 년의 백촌강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한 후, 오쓰궁에 대해서 북쪽 방면의 외국의 협위를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했었을지도 모릅니다.